

“피부색 달라도 마음은 한가족”

불교사회복지회,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대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불교사회복지회는 6월 9일 이천동 관우사에서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며, 사회복지도 가족단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가 농촌가족의 1/3이 결혼이민자가족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를 우리 사회문제로 끌어안은 것이다.

한국어 교육·자녀보호사업 등 가족문화 조기 정착 지원 펼쳐

2세 출신으로 인한 어린이, 청소년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대구에도 4700여명의 여성결혼체류이민자가 있다. 대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희)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상담, 자녀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가톨릭 문화관이나 근로자회관, 효성병원 등의 민간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과 같은 사업들을 지

역사회네트워크로 엮어 정보교류는 물론 체계적 통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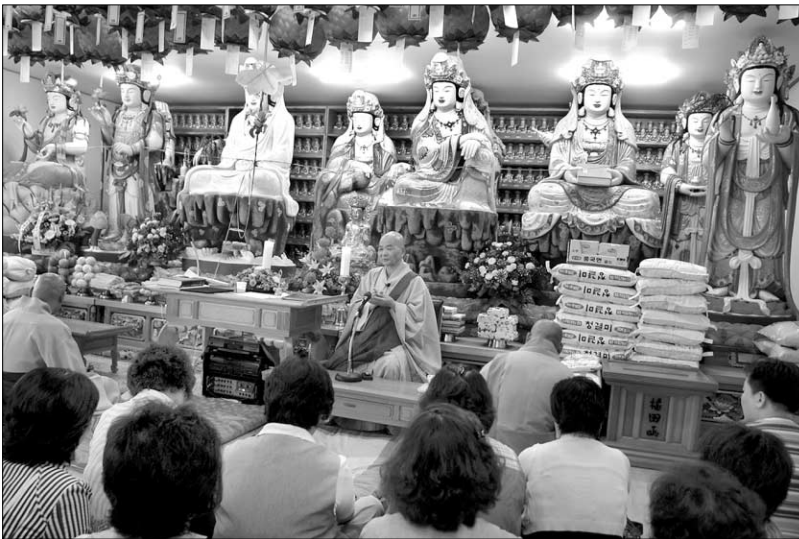
또 2세 교육을 위한 돌보미방 운영과 남구자활기관과 연계해 유료출산도우미를 저렴하게 연결해주는 사업도 생각중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트남 등 불교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여성과 불자결혼이민자가족에게 종교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것은 인식개선사업이다.

아직 수많은 한국인들이 단일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진 채 외국인에 대해 냉담하다. 특히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불평등한 우월의식과 결혼이민자여성의 폐쇄성은 큰 문제다.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최은숙 실장은 “세계가 이미 열려있듯이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마음과 폐쇄적인 이민자여성의 마음을 열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열린세계 열린마음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로의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53) 475-2324

배지선 기자



대구 무량사 목관음보살상 점안법회에서 의룡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대구 무량사, 목관음보살상 36위 조성

대구에 2m 높이의 목관음보살상 36위를 조성하는 관음도량이 있어 화제다. 대구 대명동 우리집 무량사(주지 일우)는 5월 25일 무량사 조실 의룡 스님과 서울 강동구 사암연합회장 덕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의, 유리, 마광부관세음보살 등 목관세음보살상 7위를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17년 전 관음성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원

으로 대구에 무량사를 창건한 일우 스님은 4년 전부터 36위의 목관음보살 봉안불사를 시작해 이미 5위의 관음보살을 봉안했다.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는 32尊인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11면관세음, 천수천안관세음, 용두관세음, 본존관세음보살 등 36위의 목관세음보살을 모두 봉안하고, 성주성산리에 1만평 규모의 관음성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군위 인각사, 문학작품 공모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전국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생명, 석불, 인연 만남을 주제로 운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공모하며 공모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수상 발표는 7월 15일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8월 1일 오후3시 인각사 경내에서 열린다. 인각사는 일원문화사도 제정했다. 발표는 7월16일. (054) 383-1161

배지선 기자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글짓기, 디지털 카메라 촬영대회인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5월 21일 대구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사단법인 동년 대구지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과 '동심' '부모님'을 주제로 그림, 글짓기, 디지털 카메라 촬영 부문에서 솜씨를 발휘하며 꿈을 펼쳤다. 또, 오후에는 사단법인 동년과 함께 하는 흥겨운 전래놀이 퍼레이드 공놀이, 딱지치기, 신발던지기 등 15가지의 전래놀이 체험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수상자는 29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s.com)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6월 3일 오후3시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된다. 배지선 기자

행하면서 키워나갈 예정이다. 합천군 포교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연호사 주지 진각 스님은 “취임이후 매년 2천만 원 이상을 지역학생들을 위한 포교사업비로 충당해온 해인사 주지 현웅 스님과 포교국장 본오 스님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진각 스님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작업이 어느정도 틀을 갖추면 지자체와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복지는 물론 지역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일궈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합천군민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포교원 지역포교 활성화 작업 결실

합천군은 지금 ‘불교대박’

지난 4월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합천군, 서울 노원구, 인천 등 3개 지역을 생플로 정하고 조직화 작업에 들어간 결과 합천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목된다. 6월 3일 오후 4시 합천군청 불자회장 취임법회가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6월 중 합천경찰서 불자회가 창립되고, 아로고등학교, 해인중학교, 묘산중학교를 중심으로 파라미터 경남지부 합천지

경찰·공무원 불자회 새출발 파라미터 지회 3곳서 결성

회도 결성된다. 합천지역 공무원불자회는 이시성 합천읍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 경찰불자회는 아직 회원수가 많지 않지만 공무원불자회와 연합법회를 봉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씻겨드리며 가르침 실천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현대요양병원에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7명의 불자들이 나타났다.

대구에서 처음 목욕봉사를 시작한 불자신행봉사단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단장 도재권이 증증장애환자 목욕봉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11년 전 2명의 뜻있는 불자가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실천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영남불교대학 졸업생이 아닌 불자들의 동참까지도 이끌어내면서 80여명의 회원이 팀을 이뤄 광명원과 대구시립의료원, 보훈병원 등 대구시내 6개 병원과 군우에 있는 복지관 성주, 다사의 재가자 목욕봉사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다. 초파일과 연말에는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떡과 과일을 준비해 병원을 찾아

드립니다. 머리를 먼저 감기고, 굵은 팔은 살며시 주물러 퍼 드린다. 환자를 대하는 봉사자의 손길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치밀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뼈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하고, 봉사자들의 호흡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참 고맙지요. 얼마나 편안하게 대해 주는지 몰라요.”

개운한 모습으로 샤워실을 나서서 어르신들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고 어눌한 말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의 봉사 장면. 배지선 기자

대구시내 6개 병원서 증증장애 환자 목욕

초파일·연말엔 환자 위문... “힘들지만 보람 커”

다니며 환자위문에도 나서고 있다.

일주일 만에 만난 회원들은 반가운 인사도 잠시 인원을 확인한 후 곧바로 2층과 3층 샤워장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각자 준비해온 ‘작업복(신소매에 반바지)’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르며 전문 목욕봉사단으로 변신했다.

“자 어르신, 오늘도 우리가 편히 피 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혼자 거동하기 힘든 중풍, 간암말기, 치매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새 옷을 챙겨주고 간병사의 도움을 받아 차례로 샤워장 앞에 모여들었다. 봉사자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자 어서 오시오. 어르신은 오랜만에 오셨네요. 얼굴도 많이 좋아 지셨네요.”

어르신을 대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어르신들도 편안히 몸을 내맡긴다. 휠체어에 탄 어르신을 가뿐히 안아 샤워장 침상에 편안히 모시는 이들의 손놀림이 재바르면서 부

현대요양병원 목욕봉사팀장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정선희(51·대구송현동)씨는 봉사활동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자랑이다. “생활에 활력이 되고, 가족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됐다”는 것. 팔에 흠뻑 젖은 이관선(52, 대구 반야월씨)도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 크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이벤트 사업에 종사하면서 거의 매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재권 단장은 병원목욕봉사활동을 중요한 포교활동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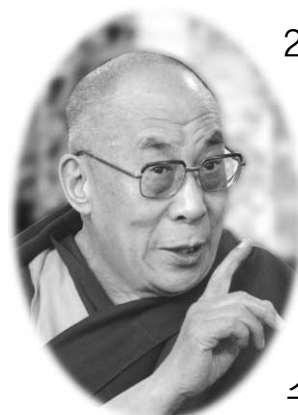
항상 경전속송이나 법문테이프, 법보시 책자 등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는 도재권 단장은 “모든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달라이라마 특별법회와 간다라·라다크 순례



2006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4회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 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줍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이번 특별법회를 통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단순히 친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상의 탄생지이며 대승불교의 발생지인 파키스탄의 간다라 및 라다크 불교성지도 순례하는 구법의 여정에 인연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델리에서 다람살라로 갈 때 이전에는 버스로 16시간 소요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람살라에서 가까운 암리차르 공항으로 도착함으로써 버스 타는 시간이 5시간 줄어 들어 일정이 매우 편리해져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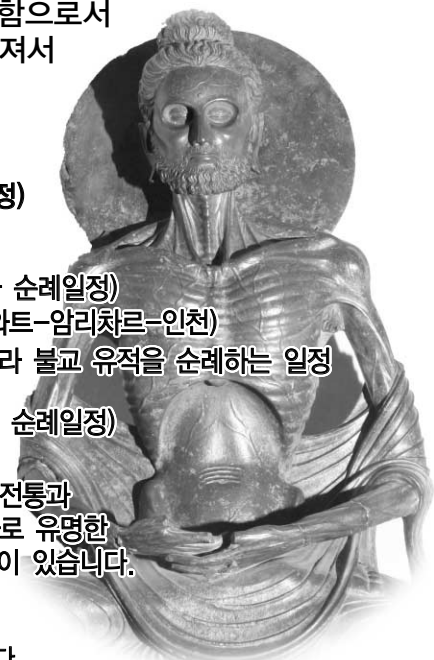
A팀 기간: 8.13~8.21 9일간 | 동참금 195만원 (설법중심 일정) (인천-인도 암리차르-다람살라-인천)

B팀 기간: 8.13~8.24 12일간 | 동참금 245만원 (법문, 간다라 순례일정) (인천-인도 암리차르-다람살라-파키스탄 라호르-타실라-스와트-암리차르-인천) ■ 법문을 듣고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찬란한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교 유적을 순례하는 일정

C팀 기간: 8.12~8.24 13일간 | 동참금 269만원 (법문, 라다크 순례일정)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레(라다크)-알치-델리-인천) ■ 법문을 듣고 라다크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라다크는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인도내의 작은 티베트로 고색창연한 벽화로 유명한 일치사원, 예수님이 수행했다는 일화가 있는 헤미스사원 등이 있습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간다라 부처님 고행상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